

홍동허스토리의 방법과 의미*

On the Hongdong Herstory

이영남(Lee, Youngnam)**

1. 머리말
2. 홍동허스토리의 배경
 - 1) 지역적 배경
 - 2) 사상적 배경
3. 홍동허스토리의 구성과 특징
 - 1) 기록풍경
 - 2) 추진과정
 - 3) 특징
4. 홍동허스토리의 기록학적 의의
 - 1) 아카이브의 문화
 - 2)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
 - 3) 돌봄의 윤리와 쾌락의 추구
5. 맺음말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durtkrk@gmail.com).

■ 투고일: 2020년 06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7월 03일 ■ 최종확정일: 2020년 07월 11일

■ 기록학연구 65, 253-319,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5.253>

〈초록〉

‘홍동허스토리’는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 형식에 담아 기록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일단의 여성들이 야밤에 집결하여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생산, 공유, 체화하는 식이다. 이 활동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이하 홍동)에서 홍동허스토리를 창안한 아카이브 활동가, 그녀의 동료들로 구성된 기획팀, 그리고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한 해 농사가 마무리 되는 늦가을, 초겨울에 열린다. 2016년~2019년 4년 동안, 20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그 과정과 결과는 3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이 글은 홍동허스토리라는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아카이브 활동을 다시 아카이빙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지역적, 사상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홍동허스토리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아카이브의 서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아카이브의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의 직접적 정보서비스, 돌봄의 윤리, 쾌락의 추구를 제시했다.

주제어 : 허스토리, 이야기, 마을아카이브, 아카이브 활동가, 아카이브 문화, 기록정보서비스, 농사, 풀무학교, 여성농업인센터, 여성 농업인, 여농, 채종, 쾌락, 자유

〈Abstract〉

Hongdong Herstory in an narrative-based archival activities. This Herstory Workshop designed by a facilitator who is using her love for language and storytelling to empower all voices. Herstory Workshop has been opened at winter every year for a month. The place where the workshop opened is located at farming area. Hongdong Herstory Workshop has been the field wher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having a talk together. 20 women have been participated at the Herstory Workshop. Herstory projects have been published every year. This essay is an trial for rearchiving the herstory projects. This essay

focused on the narrative function of archives.

Keywords : herstory, archives exhibition community archives, archives workshop, archives activist, story, narrative farming, woman farmer, seed-gathering, pleasure, freedom

1. 머리말

홍동허스토리는 자신을 '아카이브 활동가'라고 스스로 말하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여성이 시작한 아카이브 활동이다. 그녀는 아카이브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대학(원)에서 받은 적도 없고 기록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적도 없다. 그렇지만 그녀는 2014년부터 아카이브라는 말에 이끌렸다. 그 말이 주는 힘(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에 의지해서는 아카이브 활동가로 살고 있다. 아카이브는 그녀에게 직업이기도 하지만 삶의 일부이다.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과 구성된 기획팀(평균 3~4명)은 홍동허스토리를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도 그녀들의 아카이빙이 경향각지에서 전개되는 아카이브 활동의 일부가 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

의미 있는 것들의 시작은 언제나 작고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홍동의 아카이브 활동은 공공기관 공문서의 계획처럼 일목요연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 시기의 지역적 필요를 따라다니며 전개되었다. 홍동의 아카이브 활동가가 수행한 주요한 아카이브 활동은 다음과 같다. 풀무학교 아카이브반(고등학교 기록수업, 2014년~현재), 마을기록수집가 양성과정(지역주민 대상 2년 기록교육 프로그램, 2015~2016년), 마을기록학교(지역주민 대상, 2017년), 햇살배움터 아카이브(햇살배움터라는 마을교육단체의 10년 치 기록물을 조직하고 이를 웹 아카이브로 구현하는 것, 오메카 형식이며

한 아카이브 협동조합과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2017~2020년), 그리고 마실통신(마을신문)이 있다(아카이브 활동가 인터뷰, 2020.5.8.~6.12. 이하 날짜는 생략함). 홍동허스토리는 이런 일련의 아카이브 활동 중 하나이다. 만약 그녀가 기록물과 보존서고가 있는 건물의 범위에서 아카이브를 이해했다면, 이런 광범위한 아카이브 활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홍동허스토리를 쓰기 위해 홍동을 방문해서 아카이브 활동가를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2020.5.8.). 어떤 자리에서는 그녀의 동무들도 가세했다. 2차~3차 대화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6.4.~6.7 : 6.9~6.12). 이런 인터뷰 과정에서 홍동허스토리의 '정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관련된 기록물도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홍동허스토리의 과정을 담은 출판물(총 3권, 2017, 2018, 2019. 홍성여성농업인센터에서 발간)과 인터뷰 내용이 주요했다. 나아가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 기록물을 추가 수집하였다. 수집기준은 지역 내부의 목소리였다. 그 지역에서 나온 책, 그 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의 출판사를 통해 만든 책, 잡지 기고문, 강의록, 지역에서 발간하는 잡지와 신문 등을 찾아 읽고 분석했다.

홍동허스토리를 쓴다는 것은 기록학의 표준적 언어를 변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홍동허스토리가 있는 그 지역의 풍토에 적응해 유통하는 말들과 만나 섞이는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 변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말들은 이런 만남과 교류의 과정에서 나왔다. 필자는 어느 정도는 '통역 없이' 그들의 기록을 독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필자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 지역의 한 농사학교(풀무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그들의 독특한 언어와 정서를 배우는 과정이었고, 때로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유통되는 특이한 사건들을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지역의 일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는 마을기록학교의 강사로 참여한 것도 있었고, 풀무학교 전공부의 10년치 사진으로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한 바도 있었다(이영남 2012). 그 밖에 지역 사람들과 임상역사 프로그램(자기역사 쓰기)을 다년간 수행했다. 이런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인 10년의 참여, 관찰, 체험에서 나온 것들도 흥동허스토리를 쓰는 데에 사용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흥동허스토리의 지역적, 사상적 배경(2장), 흥동허스토리의 구조와 특징(3장)을 토대로 흥동허스토리의 기록학적 의의(4장)를 짚어볼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기록학적 의의는 ‘아카이브의 문화’이다. 흥동허스토리는 이야기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이런 아카이브 활동이 어떤 점에서 아카이브의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의 직접적 정보서비스, 돌봄의 윤리, 쾌락의 추구를 제시해보았다.

2. 흥동허스토리의 배경

1) 지역적 배경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미친 여자는 어디든 간다’는 말이 있다. 농촌 지역에는 전통적인 여성조직인 부녀회가 있다. 부녀회의 기능은 마을이장을 도와 ‘마을의 안살림’을 챙기는 것이다. 나이든 여성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어울린다. 그러나 부녀회와 마을회관에 있다가는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일단의 여성들이, 어느 날 새로운 조직, 공간, 문화를 만들자며 결집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흥동으로 이주한 여성들(농촌운동, 직업, 농사, 결혼 등)과 멀리서보면 여느 농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흥동에 거주하면서도 착한 여자로 산다는 것에 견딜 수 없었던 여성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들에게 부녀회 활동은 거의 불가능했다. 마을회관에 가기에는 너무 젊었다. 피가 끓고 있었다. 면사무소 근처의 대여섯 개 있었던 다방이나 주변의 술집에 드나들 수도 없었다. 1970~80년대 면사무소 주변은 북적였다. “거리는 변화했고 지금보다 오히려 굉장히 좋았었어요. 슈퍼

도 크고 장사도 잘 되고 그때는. 벼 매상할 때는 진짜 복잡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옷가게, 미용실, 그리고 다방도 많았죠, 그때. 지금 그 다방들이 없어진 거보면 희한해요. 그때는 아주 활기찼었어요.”(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46). 이곳은 남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런 남성문화에 여성으로서 자신을 의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선은 조직이 필요했고,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2018). 그것은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홍동허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동의 역사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홍동의 현대사는 ‘1958년 풀무학교 개교’를 분수령으로 전개된다. 풀무학교의 등장은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등장이었다. 그것은 무교회 신앙, 유기농, 협동조합, 대안교육(인간교육,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수행하는 마을교육), 마을신문 등이었다. 홍동현대사의 상징적 인물인 홍순명(전 풀무학교 교장)은 한국현대사에서 농사의 의미를 사상과 문화로 이해한다.

“일본의 농업이 생활에 밀착한 기술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농업은 사회적 이념이며 문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은 교육과 농촌을 통해 투영되어 갔고, 그러한 정신은 오산학교(평북 정주)에서 다양하게 실현되었지요. 이러한 정신적인 영향력이 축적되어 (오산학교 출신의) 이찬갑 선생님과 주옥로 선생님의 노력으로 풀무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협동조합 형식의 지역사업이 15-20개 정도 되었어요. 도서조합, 농기계조합, 적정기술조합, 소비조합 등등요. 협동조합은 민주적 절차와 공적인 마인드, 하면 될 수 있다는 이념이 공유되면서, 하다 만 것도 있지만 홍동에서 계속되어 갔습니다.”(송두범 외 2017, 91-92).

풀무학교 설립자(이찬갑)는 1958년에 풀무학교를 개교할 때 새로운 시대의 충아를 농촌이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당대의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를 향해 돌진하는 사회적 욕망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선언이었다. 이전에도 홍동에는 교회가 있었고 교인들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었다. 당시 홍동

면에는 1만 명이 넘는 면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 농협이 있었고 마을에는 농민조직(특히 계)도 있었다.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무교회 신앙은 권위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의 가치를 알려주었고, 유기농은 관행농법(1930년대 이후 과학적 농법)의 파괴적 성격을 일깨워주었다. 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의료생협 등)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대단한 정치적 가치를 가진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대안교육의 등장은 주류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제도권의 주류교육이란 사실은, 도시로 빠져나가지는 교육, 출세하자는 교육, 내세울 수 있는 간판을 달자는 교육, 소수의 지배층으로 선발되어 안전하게 살자는 교육임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풀무학교는 인간교육,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교육, 농촌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일구는 교육,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시했다. 풀무학교의 역사는 새로운 교육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송두범 외 2017, 이병영 2018, 이승진 2017, 이찬갑 2010, 홍순명 2005).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가치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2013, 44). 한국전쟁 이후로 국한해본다면, 이런 새로운 시도는 한국에서는 모두 최초의 시도였다. 30~4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치를 묵묵히 실천한 것이 흥동 현대사이다. 풀무학교는 처음에는 ‘위대한 평민’을 모토로 삼았다. 그런데 지역에서 점차 민주주의 의식이 싹트면서 이 모토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위대한 평민은 평등함과 관계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적합한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바뀌었다. 결국 흥동현대사는 위대함을 먼저 실천했고, 그것을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나누려고 애썼던 역사였다. 풀무가 물고 온 새로운 사상과 가치는 흥동현대사가 자부심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인류사적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위대한 역사일수록 미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사실 무교회신앙도, 유기농, 협동조합, 대안교육, 마을신문도 여성들이 함께 일군 역사였다(이승진 2017, 충남발전연구원, 흥동마을 사람들 2014, 흥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2018, 2019). 그러나 지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남성들의 목소리가 전일적으로 흥동현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마을을 함께 일궈온 여성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부녀회의 조직과 언어로는 이런 여성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담기는 어려웠다. 부녀회 여성들에게는 자기 이름의 통장이 없었다. 면사무소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농민으로 등록할 수도 없어 농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여성농민들은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도 마을회관에서 마을일로 투표할 때 할머니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히 역사의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1980~90년대부터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가진 여성들이 흥동에 나타나더니, 1958년에 그랬던 것처럼 흥동의 정서가 바뀌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면 새들도 바뀐다. 계절마다 피는 꽃들도 다르고, 철 따라 농사를 짓는 농부들로서는 해야 할 일도 달라진다. 흥동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새로운 활동, 새로운 평등한 풍경, 그동안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했다.

2) 사상적 배경

(1) 여농의 등장

흥동에서 농사는 단순하지 않다. 흥동에서 농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이고, 이 물음을 따라 형성된 사상과 문화의 전통에 놓여 있다. 현재의 농업은 근대산업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흥동에서는 ‘농사와 농업’을 구분하려고 애쓴다.

이 지역에서 교육농장을 하고 있는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농은 산업 이전에 삶의 방식이자 문화입니다. ‘땅에 기반을 두고 생명을 기르고 돌보며, 그 생명을 받는 순환적 관계’인 농은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은 촌스럽게 흙투성이라는 오해와 편견 속에 교육 그리고 우리 생활세계와도 점점 더 멀어져 왔습니다. 이제 오해와 편견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농을 새로이 다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교육농협동조합 2019, 7). 그들에게 ‘농(農)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농은 그들의 사상(생각)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농은 자기의 육체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는 일상문화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농의 관점에 서면, 농사란 삶의 기술이자 문화이다.

전업농이든 겸업농이든, 여성농민이든 남성농민이든, 농사를 배우는 학생이든 고령의 농민이든, 지역의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든 읍내의 직장에 다니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농은 그들에게 공통감각이다. 농토를 늘리고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 땅과 어떻게 연결되어 살 것인가가 진정한 고민이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농사를 연결하려고 노력한다. 교실에서 하루 종일 수업만 듣는 것은 곤란하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를 ‘도깨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실에서 오후에는 논밭에서 일하는 식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농장을 만든다. 청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청년협업농장을 만든다. 이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것이다. 농은 그들을 연결하고 결속시키고, 또한 같등하게 만드는 공통감각이다.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상가이다. 물론 대단한 책을 펴낸 사상가는 아니지만 이들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물론 통념적인 사상가가 이 지역에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홍순명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사상은 책에 있지 않다. 사상이란 것은 체화되어 무화된 채 그들의 육체적 노동에,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에, 그들의 일상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관계가 서투르면

사상이 서투른 것이다. 이런 기초에서 ‘여농’의 등장과 활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대농업은 관행농(기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농법)으로 발전한 농업이다. 문제는 관행농이 ‘녹색혁명의 신화’를 가져왔지만 건강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비용을 치르며 발전해왔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근대농업은 산업농(대량생산-대량유통체제, 시장의존도가 심화되는 농업)으로도 발전해왔다. 산업농은 상품성 위주의 작물생산, 단작생산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자급자족과 지역순환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유기농사와 소농의 대안적 흐름이 나왔다. 건강한 먹거리, 생태계와 공존하는 농사, 자급자족의 강화, 지역순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흥동의 현대사가 추구했던 것도 이런 대안적 농사였다. 그런데 여농은 유기농과 소농의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이것 말고는 더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글에서는 평등의 가치에 주목했다. 여농은 평등과 농사가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농의 가치에 평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고, 평등이 들어가야 비로소 농은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기술이 될 수 있었다.

여농은 사실 ‘여성농민’,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의 줄임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치적 은유로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허스토리’가 새로운 관점(대상으로서 여성이 아니라 주체로서 여성의 관점)과 언어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긴 하나 물질성을 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 여성농민이라는 존재성, 여농센터라는 공간성에 대해 말하면서 여농의 등장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홍성여성농센터는 농림부(여성정책담당관실)의 지원을 받아 2002년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시대의 반영이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시군마다 농촌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을 대상으로 계몽지도, 기술보급 및 훈련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도는 곤

란해졌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지도한다는 것도 어려워졌다. 농촌지도소는 지방정부 소속의 농촌기술센터로 변경되었다. 한편, 여농센터는 다른 흐름에서 나왔다. 정부에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조직(2001년에 중앙행정기관인 여성부 신설)이 신설되는 등 관련 법률, 조직, 제도, 정책, 예산 등이 정비되었다. 2001년에는 ‘여성농업인 육성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했다. 정책적 지원에는 여성농업인지원센터의 건립도 있었다. 2002년에 18개로 시작해, 2017년 현재 41개로 확대되었다. 2005년에 농림부에서 지방정부로 관련 업무와 권한이 이관되었다(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8).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여농센터가 설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실은 어떻게? 정부의 농촌투자 실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 동안 6조원을 투자해 1,000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3~5개 마을을 묶어서 40억~100억을 지원하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소득은 늘지 않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마을에서 전기세조차 부담하기 어렵다. 자물쇠를 잠가 놓은 건물은 흉물스러운 시골풍경에 일조하고 있다(각종 마을회관, 정자 등). 갑자기 생긴 돈은 마을에 갈등과 분쟁을 불러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도 생겼다. 정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번영 2018).

지역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정부의 기획과 문서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부 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시민의 대책을 봐야 한다. 그들의 열정, 의지, 비전, 집행력이 있어야 정부 정책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장기간 서식하는 가치 있는 것들에 속할 수 있다. 홍성 여농센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흥미롭다. “전국에서 홍성만 유일하게 3년마다 센터장을 바꿉니다. 그런 결정을 한 데가 홍성밖에 없습니다. 다 사유화가 됐거든요. 공적인 일을 하지만 사유화가 된 거라서.”(홍성여성농업인

센터 2017). 사유화는 유치원, 보육원 등의 시설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당시 농림부의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정부에서 1억 2천을 준다, 5명을 뽑아서 쓸 수 있다, 건물은 자기가 마련한다, 대표는 130만 원 받을 수 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이런 정부의 지원방안은 부녀회를 탈출해 새로운 조직, 공간, 문화를 만들려는 의지를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러나 그들은 외부의 자극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였다. 자유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광폭적인 반응이 즉각 시작되었다.

당시 여농센터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나의 개인사업이 아니라 지역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정말 드문 발상이에요. 근데 귀영 씨(초대여농센터장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인물)가 그런 발상을 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 해줬다는 거에서 지금도 굉장히 고맙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31). 이들이 개인사업을 거부하고 지역사업화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지역에 사는 많은 여성농민들, 함께 하는 여성들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고, 뭔가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런 흐름을 공공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공공건물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들의 눈에 들어온 건물은 면사무소 소유의 건물이었다. 당시는 1층은 경로당, 2층은 홍성역사연구회가 쓰고 있었다. 그들은 즉각 면사무소로 달려가 면사무소를 점거농성하다시피 해서 지극정성으로 건물을 확보했다. 2층의 홍성역사연구회는 쓸쓸히 퇴장해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졌다. 여농

센터는 또한 초기부터 운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었다.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 조직 운영과 건물에 있어서 사적인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차단되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여농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여농센터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좀 더 살펴본다. 2002년 당시 운영위원회는 총 1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30~40대의 여성들이었다. 운영위원회에는 두 개의 분과가 있었는데, 보육분과에 7명, 여성분과에 7명이 있었다. 운영위에서 센터의 사업방향과 사업내용을 논의한 후에는 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갔다. 2대 대표부터는 대표 임기제를 시행했다. 이것은 ‘개인사업처럼 운영되는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홍성여성농센터는 그 내부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보육분과와 여성분과는 각각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했지만, 일관된 방향성이 있었다. ‘여성농민들이 대접받고 그 귀중함을 서로 격려하고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것이다(홍성신문 2002.4.26, 오마이뉴스 2006.11.6.).

여농이 실천하는 공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흥동에서 여농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성적인 것, 일상적인 것, 농사에 관한 것,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런 여성농민의 삶에 관여된 것들을 공공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2) 여농센터 공간의 성격과 의미

공공성은 정부의 본질적 속성이기보다는 정부와 시민이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다(사이토 준이치 2009). 이런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정부 아카이브의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디에서 기록물을 수집하느냐보다는, 어떤 성격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느냐보다는, 아카이브가 시민들과 어떻게 만나느냐를 면밀히 검토할 때 비로소 정부 아카이브에

어느 정도의 공공적 효과, 어떤 계열의 공공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정부 아카이브는 ‘행정기관’이며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시설’이다. 6시면 문을 닫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반면, 여농센터는 좀 다르다.

이 글에서는 여농센터의 공간적 성격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 첫째, 여농센터는 정치적 공간이다. 여농센터가 하는 일은 농촌에 사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녀회 활동과 다른 점은 명확하게 정치적 실천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다. 그녀들은 저항적 성격의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명확하게 자기언어로 말하며 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강자와 권력자들은 그 강함과 권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론과 장치를 사용해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사람을 지위에 따라 줄 세우는 서열화인데 여성은 늘 그 서열의 아래에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줄을 서면, 여성은 항상 남성의 아래였습니다. 이렇게 늘 남성의 아래에 있도록 자리매김된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센터는 여성농업인의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8, 4).

매일의 삶에서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 말하고, 그 근거로 평등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모임을 조직하는 일이 여농센터의 일인 것 같다. 여농센터는 모든 인권의 근본에 성평등이 있다고 보고, 지역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지향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모임이 조직되어 사람들이 모이고, 공부하고, 소통하는 일이 여농센터의 하루이다. 2019년 현재 비폭력대화모임, 행복한 성이야기모임, 여성농민생산자모임, 공방모임 등이 매주 모여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흥동허스토리도 있다.

물론 지역의 실상은 복잡다단하다. ‘정말 콕박혀서 일만 하면서 여농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여성 농민들도 많다. 평생을 ‘그 집의 소처럼 정말 뼈 빠지게 농사짓고 자식들 다 키워내고는, 나이가 들어 지금은 마을회관 지저분한 방에 남아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 여농의 진정한 출발은 여기일지 모른다. 2016년 현재 홍성여농센터장은 마을의 대소사를 알고 있는 부녀회장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는 것, 고령화 되는 농촌에서 여농센터 같은 정치적 공간을 담당할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38-39).

둘째, 개방된 공간이다. 여농센터는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시설은 아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농센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지역 사람이 아니어도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성농민이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 아이들과 청소년들, 농사를 짓지 않는 여성들, 농사를 짓든 짓지 않든 남성들,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오가는 사람들도 무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여농센터이다. 그런데 이런 개방성은 저절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예상되는 일정한 위협을 감수하는 가운데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세상 사람들이 1부터 10까지 열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 1부터 10까지 사람이 모두 오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센터 문이 수없이 자주 열려야만 우리가 존재가치가 있다. 정말 이 지역에 계속 사신 분이건, 귀농하신 분이건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뭔가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더우면 쉬었다 라도 가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랐지요. 공간을 누구나 쓴다고 하면 다 내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다못해 애들이 시험공부를 하러 온다 해도 다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망쳐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면 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내놓고 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해서 센터를 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21).

센터는 초기부터 여성의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예를 들

면, 2002년 첫 해에만 해도 작은 도서관, 방과 후 교실(초등학생 어린이 합창단, 전통 다도, 종이접기), 보육활동(영아전담반, 일일탁아, 농번기 탁아), 여성 취미교양 활동(품물강습, 정보화교육, 스포츠댄스, 짚풀 공예), 여성지위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적 측면), 농사교육(유기농사 기술, 영농일지 작성법, 경영수지표 작성, 전문농업인교육과정, 회의 및 조직관리법, 협동조합 강좌), 고충상담(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 중고품 교환 및 농산물 판매 등이 있었다(홍성신문 2002.4.26). 이런 기초는 꾸준히 이어졌다.

초기의 여농센터는 30~40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고 운영했다. 그들은 초기부터 여농이라는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우선 흥동지역 여성과 아이들이 즐겁고 편안한 공간, 언제나 들락날락하고 이곳에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간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품앗이로도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베꿀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정신이 있었다(홍성신문 2002.4.26, 오마이뉴스 2006.11.6).

여농센터에 대한 것은 이 정도에서 줄여야 할 것 같다. 앞서 지역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정부의 기획과 문서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여농센터는 정치적 공간이고 개방된 공간이다. 이런 새로운 공간에서 지역의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온다. 흥동허스토리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흥동허스토리의 구성과 특징

1) 기록풍경

(1) 이야기의 전경

흥동허스토리는 11월~12월의 야밤에 열렸다. 농촌의 밤은 어둡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과 드문드문 자리 잡은 집들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는 어둠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래도 흥동허스토리의 밤에는 경쾌함이 감돈다. 며칠 전부터 소문이 나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동네 얘기, 미용실 얘기 한다고 포스터에 걸려 가지고 ‘아, 저 시간에 꼭 내가 가서 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흥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53). 흥동면사무소 사거리에는 커다란 플랭카드가 이미 걸려 있었다. 위치상으로는 면사무소와 마주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차별과 대립하며 썰려보고 있었다. 매년 겨울, 흥동면민들은 〈흥동허스토리,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선명한 글자를 보지 않고서는 왕래가 많은 그 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소문은 돌고 돌았다.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X가 발병 났다거나, 위독하다거나. 수소문에 따르면, X가 먼 바닷가에 상륙해 동백꽃 산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그렇지만 X가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미친놈들, 더러운 놈들에게 몽둥이로 얻어맞아 선지피 흘리며 거꾸러졌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X는 뒷동산에, 시냇가에, 그리고 가게마다, 몇 날 밤 우리들 모르는 새에 이미 숨어 와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신경림의 시, ‘봄의 소식’을 조금 고쳐 씀). 마을이장은 면사무소로부터 한 해 평균 200장 내외의 공문을 접수하여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흥성여성농업인센터 2019). 그러나 지역에 돌고 도는 ‘X의 소문’은 면사무소 공문에는 없을 것 같다. X는 야밤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가을걷이도, 김장도 끝났다. 내년 농사를 위한 채종도 마무리 했다. 겨울논은 한 해 농사를 다 지었다는 여유로움으로 서리를 하얗게 품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들어 몇 십 명이 모여 앉았다. 아카이브 활동가와 〈풀무고 아카이브반〉에서 기록공부를 하는 10대 학생들도 생활관(기숙사) 규칙을 깨고 몰래 빠져나와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오래된 벼들은 맨 앞에 자리를 잡았다. 약간 긴장한 남성들 몇몇은 보이지 않게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동료, 제자, 이제는 훌쩍 커서 성인이 된 그 시절의 아이들, 10대부터

70~80대까지 남녀노소 분별없이, 개도 고양이도 인간 동물 구분 없이 흘러
듯 찾아왔다.

각자 음식을 들고 모이는 포트락 파티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정상 그냥
올 수 없었던 시골사람들은 형편이 닿고 마음이 가는대로 음식을 가져왔다.
하루는 '홍동미용실 40년'을 이야기하러 온 70세 여성이 직접 농사지은 보
리로 식혜를 만들어왔다. 미용실을 하면서도 손바닥만 한 밭에서 17가지
작물을 농사지으며 가족이 먹을 것을 농사지은 그녀였다. 도시 미용실과
유기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에 자리를 잡은
미용실의 차이 중 하나일 것 같다. 사람들은 그 날의 이야기 주인공에 헌정
된 전시회도 구경하고 주전부리도 나눠 먹으며 시끌벅적 환담을 나누었다.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미리 기획된 것이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사전에 수집한 예전 사진 혹은 현재 활동 중인 사진을 당일엔 전시한다. 예
전 사진들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인터뷰 시간에 현재 활동하는 모습
을 촬영하여 전시한다. "전시는, 행사 전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주
인공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고, 또 마을 사람들과 사진
을 같이 보면서 당시를 떠올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마을사람들의 옛 모습에, '아 우리가 저때 같이 했었지' 하면서,
끝난 후 전시한 사진들은 각 개인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아카이
브 활동가 인터뷰). 홍동허스토리에서 전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좀 있다, 다소 긴장하는 누군가가 아카이브 활동가와 함께 기록의 무대
에 올랐다. 동네를 오가며 자주 마주친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 더구나 자신
이 살아온 얘기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긴장하기 마련이지 않을까. 그러
면서도 몸은 서서히 막연한 열기에 흥분되기 시작했다. 인간을 움직이는
어떤 원초적인 낭만성이 이런 순간이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생이 막막할
때는 오로지 발바닥의 감각에 의지해서 걸어간다고 했다. 인생을 말하는
이 날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뭐, 잘난 게 있다고 이려고 있는가. 그
러나 X는 이성이 있다는 냉철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머리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를 잡은 발바닥으로부터 서서히 X는 밀려오기 시작했다. 잘난 체보다는 그녀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의지는 아닐까 한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한 설득을 통한 섭외를 거쳐 사전 인터뷰를 몇 차례 하면서, 자택이나 일터에 찾아가 사진도 수집합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전 생애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싶고 공유할만한 내용을 추리는 작업을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확정합니다. 그날 이야기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지인들이 있는지 문의하여, 함께 인생을 살아온 지인들을 초대합니다.”(아카이브 활동가 인터뷰). 초대 받은 사람들과 무작정 찾아온 사람들과 이런 뜻깊은 시간을 놓칠 수 없어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모여 앉는다. 그렇다면, 더 기다릴 것이 없다. 서서히 한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고유한 이야기가 나지막하게 나온다.

당일의 행사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1부에는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토크 콘서트 형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짜여진 각본대로 되지 않았다. 급작스럽게 질문지가 날아들고, 궁금함에 못 이겨 중간에 불쑥 끼어들어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사회자는 미리 준비한 질문일랑 잠시 덮어두고는 끼어든 질문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확장했다. 유연함이 있는 자세였다. 갑자기 끼어든 사람을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며 타박하지도 않았다. 환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유쾌하게 웃으며 끼어든 사람도, 빙 둘러 앉은 청중들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수궁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맥락을 넣는 데에 주력했다. 아카이브 활동가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다.

2부에는 참석자들이 합세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과 오래된 벗들이 당당하게 가세하고, 지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가세한다. 말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가도 주위의 압박에 못 이겨 말해야 하는 사람들도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장황하게 가세한다. 머느리도 가세한다. 자신은 다니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다

나는 흥동미용실에 대해 평소 궁금해 했다면서 말한다. “왜냐면 한 번도 가 보지 못했지만 항상 궁금했던 곳. 저기 정말 오랫동안 미용을 하신 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이야기도 듣고 싶었어요.”(흥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57) 어떤 청중은 평소 아들에게서 아들 친구의 할머니가 하시는 흥동미용실에 대한 얘기를 접했다면서, 오늘 정말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이제는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미용실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마워했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이야기 주인공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을 정돈하고 나오지만, 실제의 이야기는 청중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양상을 전개되었다. 그 날의 의외성은 사람들을 몰고 예상치 못한 곳에 내려놓곤 했다.

흥동허스토리는 이런 방식으로 마을공동체를 지탱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개인사이면서 동시에 마을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자기를 말하는 것은 마을에 속하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다성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실적, 정보적 섞임보다는 감정적 섞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2부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chorus)를 연상시킨다. 어떤 사람이 운명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운명이었어요.”(흥성여성농업인센터 2018, 88). 코러스는 언제나 극적인 순간에, 비극의 주인공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속으로 더 깊어갈 때 등장한다. 코러스는 일제히 이제 당신 운명을 변경할 정의는 없다며 그 슬픔을 아름답게 노래한다. 관객의 슬픈 감정은 고양되며 더 깊어진다. 이런 깊어진 감정이 비극을 구성하는 감정이 된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흥동허스토리는 따로 코러스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청중들이 이야기에 가세하면서 ‘코러스 효과’를 냈다. 물론 슬픈 운명을 노래하진 않았다. 즉석에서 결집한 ‘허스토리 코러스’는 유쾌하게 ‘운명을 이기는 힘인 정의’를 노래했다. 여럿이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정의가 있는 운명에서 나오는 힘은 확실히 유쾌함을 준다.

홍동허스토리는 통제되지 않은 느슨한 공개행사이다.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윤곽은 있지만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것들에는 우발적인 것들이 있다. 홍동허스토리에서 이야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의존하면서 발생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행사가 주는 의외성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야기 자체의 속성이 주는 의외성(말하다보면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속성), '마을청중'이라는 변수에서 발생하는 의외성(가만히 강연을 듣는 청중이 아닌 한, 발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홍동허스토리에는 무엇보다도 이야기 시간의 절반을 '마을청중'에게 할애한다는 특징이 있다).

홍동허스토리에도 이야기 구성을 위한 규칙이 물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롭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조장했다. 그 증거라면 매번의 시간마다 발생하는 의외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부에서는 의외성이 커진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덧붙일지는 알 수 없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모여 앉은 마을청중들 각각에서 나오는 특유의 체취들이 모여서 그 날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야밤을 급습한 허스토리 청중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서로 몰랐다.

구술을 할 때 질문지에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질문지 바깥에서 기록하려는 시도를 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동허스토리에서 질문지는 단지 시발점일 뿐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자는 식이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청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 자락을 까는 것에 주력했다. 아카이브 활동가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를 보는 아카이브 활동가도, 청중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꺼내드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개행사에는 이런 의외성이 만드는 특별함이 있었다.

홍동허스토리는 ‘이야기 주인공의 마무리 발언’을 엔딩 크레딧으로 삼았다. 이런 자리에 초청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 이야기를 한 후 달라진 점, 앞으로의 각오와 새로운 모색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때로는 선문답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색적인 엔딩 크레딧도 있었다. 여농센터를 말하는 자리에서는 이야기 주인공(초대 여농센터장)이 아니라 현재 여농센터장이 나서서 여농의 미래를 말했다. 갓골유치원 이야기를 할 때는 당시 코흘리개가 이제는 동료 교사가 되어 엔딩 크레딧을 올렸다. 시골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는 그녀는 벌떡 일어서더니 마이크를 꼭 잡고 노래를 불렀다. 이런 식이었다.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저주 받은 것처럼 홍동허스토리의 엔딩 크레딧은 다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양함이 엔딩 크레딧을 올렸다.

이제 끝이 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무대로 몰려 나갔다. “홍동허스토리,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글자 주위로 모여 들었다. 그들은 인간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출현한 단체사진 포즈를 취하고는 활짝 웃었다. 전면용 시 사진 한 장이 그 날을 기록해주었다. 그렇게 홍동허스토리의 밤은 저물었다.

(2) 이야기 풍경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이었다. 허스토리의 밤에 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아카이브 활동가는 사전에 그녀들을 몇 차례 만나 이야기 주제를 선별했다. 유년의 이야기, 학창생활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시콜콜한 얘기, 좌절과 고통으로 점철된 슬픈 이야기, 사적인 것에 속하는 것들은 없었다. 아이 키웠던 이야기, 시부모 모시고 산 이야기, 남편 이야기는 맥락상 필요할 때면 등장해 제 역할을 하면서도 독립된 이야기 주제는 아니었다. 홍동허스토리는 다른 쪽을 바라보며 다른 이야기를 했

다. 기록의 무대에서 비추는 조명은 전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만 모아졌다.

① 어떻게 해서 홍동에 살게 되었는지가 이야기의 첫 장면이었다.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의 첫 장면처럼 그 날의 주인공은 이야기의 지평선 저 멀리에서부터 서서히 입장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홍성으로 어떻게 내려오 신걸까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9).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홍동허스토리가 처음 시작되는 날,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를 홍동허스토리는 이렇게 서막을 열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홍동에 거주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홍동에 살게 된 이유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홍동허스토리는 홍동이라는 서사적 배경에 이야기 주인공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학업상의 이유, 직업 선택의 의지(이 경우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결혼이 그녀들을 홍동으로 불렀다.

② 연애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매번 허스토리를 할 때마다 연애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연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89). 연애는 청중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야기 도중에도 쪽지가 들어왔다. ‘지금 연애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하는 식이었다. 연애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한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연애에 들어 있었다. 그 일의 전후로 연결되는 일들이 연애를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주었다. 연애를 말하지 않으면 그녀가 왜 여기에서 이려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연애는 다른 인생사와 연결되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되었다.

연애는 때로 과거의 아름다운 회상으로도 다가왔다. 풀무고등학교에서 1년 선배와 연애한 사람은 아파 누워 있을 때 연인이 호떡 하나를 사다준 날을 웃으며 말했다. 10대의 사랑은 호떡에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볼수록 연애는 과거의 추억만은 아닌 것 같았다. 청중들을 데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 말하는 연애는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삶의 나침반이었다. 한번은 아카이브 활동가가 이제 밤도 깊었으니 모임을 마쳐야 한다며 그 날의 이야기 주인공에게 마무리 말을 해달라고 하자, 그 사람은 노래를 부르겠다고 별떡 일어났다. 오른손으로는 마이크를 잡았고, 왼손은 주먹을 쥐었다.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 바쳐라.” 그녀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를 불렀다. 그날 밤은 노래 한 곡이 엔딩 크레딧으로 올랐다. 왜 굳이 노래를 불려야 했던 것일까.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진지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음악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래를 마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청중들은 가만한 미소로 응대했다.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③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는 흥동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애사적 접근보다는 사건사적 접근을 취했다. 마을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일에 관한 이야기를 선별했다. 그래서 아카이브 활동가와 청중들은 하나 같이 오늘도 “흥동의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했다.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이곳 흥동에서 각자가 살아온 삶이었다. 그것을 책이나 관념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을 살았던 삶의 구체적인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말하라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흥동미용실에서, 어떤 사람은 갯골유치원에서, 어떤 사람은 흥성여농센터에서,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장터조합에서, 어떤 사람은 예술피아노학원에서, 어떤 사람은 시골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풀무학교에서, 그리고 광활한 논밭에서, 그 곳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그랬느냐 하는 것이었다.

플롯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당신은 흥동의 구체적인 장소인 그곳에서 매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으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가. 왜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어떤 점에서 당신 삶을 말해주는 사건이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 플롯으로 그녀들의 이야기는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여농센터가 지역여성들을 결집했던 사건들, 시골학교와 그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서 있었던 교육에 관한 사건들, 유기농사에 얽힌 사건들, 미용실과 피아노 학원에서 벌어진 사건들, 지역 내 로컬푸드 매장의 상징적 장소인 할머니 반찬가게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성 마을이장의 이야기, 농촌에서 20~40대 비혼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이야기가 플롯을 따라 전개되었다.

이 플롯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이 마을에는 ‘농사의 달인’으로 불리는 전설적 여농이 있었다. 그녀는 여상 시절 경운기를 배우며 농사를 시작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흥동에 등장했는가인데 비해,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 계속 살고 있던 그녀는 농사를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해야 했다. 그러니까 19살 고3 여학생이 군대를 가는 오빠에게 경운기를 모른 법을 배우는 장면으로, 그녀의 허스토리는 시작되었다. 20대에는 농촌의 젊은 남자들이 판 속셈이 더 많을 수 있는 4H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남자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다. 결혼을 해가지고는 젊은 시절 혼자된 시어머니 대신 농약통을 땀다. 가까운 곳에 사는 친정에서는 속상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날은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귀농을 한 또래 친구를 만나 충격을 받고는 유기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연은 이랬다. 집 주변에 활짝들 피어난 홍화에 진딧물이 막 제집마냥 모여 들었다. 농사의 달인은 충고를 해주었다. 아직 농사가 서툴러서 그러는 가 본데, ‘이런 건 약 한 번이면 돼, 한번이면 돼.’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귀농한 또래 친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무시당한 느낌에 따지고 들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반박하기보다는 찬찬히 자신은 유기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농사의 달인은 그만 초보에게 일격을 당했다. 유기농사가 뭐지? 이 물음으로 유기농사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전히 농사라는 운명에서 사는 것이지만 유기농사는 정의로운 운명이었다. 농사를 짓는 이유가 땀땀해졌다. 협동조합(생산자, 소비자), 도농교류 활동, 여농센터 활동, 육아운동, 그리고 이 지상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반대하는 힘도 있었다. 시어머

나는 왜 갑자기 체초제 대신 힘들게 밭을 매야 하는지에 대해 항의를 했다. 남편은, 당신 여농센터를 나가면서 이상해진 것 같아, 그 전에 듣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해, 꼭 거기에 나가야겠어? 조금씩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렇게 울음과 웃음으로 30년 농사지으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농사경험과 기술, 그리고 사상(한 사람의 농민이자 여성으로서의 생각)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고유한 경험과 삶의 기술과 사상이 등장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일 충실히 하며 지냈던 것이었지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동에서 살게 되면서 홍동을 대표하는 홍순명 선생님과 같은 남자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곳곳을 보면 다양하게 마을일을 도맡아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홍동허스토리라는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9). 그렇다면, 여농센터를 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농촌여성의 권익을 위하고 성평등을 위한 것이었다. 유기농사를 짓는 것은 비록 사는 곳은 달라도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었고, 동물들과 식물들과 생태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었다. 여성 마을이장으로 마을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남성의 시선으로 보지 못해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마을일을 마을공동체의 공적 의제로 삼는 것이었다.

④ 홍동허스토리는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만드는 형식이다. 아카이브 활동가가 질문을 하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질문을 받아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다가도 종종 질문을 벗어난 곳으로 빠져나가 기록의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듣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전후팩락을 말해준다. 전문가의 강연처럼 일목요연하게 뻗어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마을일이란 누군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에 마을일이 이야기 속 사건으로 등장할 때는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하면 개입하기 때

문이다. 그들은 듣는 사람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으로 변신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아카이브 활동가와 이야기 주인공의 1:1 대화는 곧이어 집단대화로 전환되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날 이야기 주인공의 이야기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집단서술이 되는지 알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이 마을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것이 마을에서 공동체적 전망을 갖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런 섞임이 있어 흥동허스토리는 두텁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이야기의 방향, 속도, 소리를 조절하는 윤희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마을청중들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공명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누구라도 혼자 살아온 시간은 아니었다. 청중들 중에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당사자가 되어 그때 그 일에 대해 다른 맥락을 덧붙여 주었다. 그리고 목격자가 되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땠는지 말해주었다. 흥동허스토리는 1부와 2부가 평등하게 배치된 이야기 공간이었다. 2부는 이야기를 교직하는 시간이었다. 1부에서 이야기 주인공이 낱실을 걸자 청중들은 2부를 기다렸다가 그 낱실에 맞춰 씨실을 걸었다. 한 마을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직물처럼 직조되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어울리며 평등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곳이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나온다. 물론 이상적인 공동체는 없을 것 같다. 현실은 갈등이 상존하고 배타적인 행동으로 서로에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날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을에 흐르는 공동체적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과 그것을 의식하며 연결된 자아로 살려는 노력일 것이다. 연결된 자아들의 집단적 힘에서 우리는 공동체적 전망을 품을 수 있다. 흥동허스토리는 이런 공동체적 전망을 이야기 형식으로 만드는 자리였다. 흥동허스토리에서 이야기가 생산되는 방식은 평등과 협력의 방식이었다.

2) 추진과정

(1) 발단

여농센터는 오래 전부터 ‘여성의 삶을 기록하여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4). 그렇긴 해도 흥동허스토리가 2002년부터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그때도 ‘여성기록’의 필요성과 욕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아직 아카이브라는 사회적 존재가 극히 미미했던 때였다. 공공기록관리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정부 내에서도 정부기록보존소와 관련 부서 정도만 인지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 때(2003~2008) 참여정부 기록혁신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아카이브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08년~2016년 시기에 대통령기록 이슈가 몇 개가 요란하게 터져 나오면서 아카이브는 대중적으로도 인지될 수 있었다. 아카이브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일상에서,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과 아카이브를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2014년 4.16 참사 아카이빙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다양한 계열의 아카이브가 열병처럼 번졌다. 마을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여성아카이브, 사건아카이브, 일상아카이브처럼, 자고나면 새로운 아카이브가 생겼다. 사람들은 도처에서 아카이브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체득해갔다.

2014년이었다. 흥동에도 아카이브 활동가가 출현했다. 흥동허스토리의 이야기 플랫폼처럼, 그녀는 아카이브 평원의 저쪽에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해 들어왔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미친 여자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상징적 이미지가 없이는 그녀를 말하기 어렵다. 미쳐도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도 아니며, 돈이 되는 일도 아니

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작은 빗방울이 세상을 푸르게 하듯이,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네요. 작고도 큰, 홍동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4년째 이르고 있습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8, 7). 그녀도 홍동허스토리 이야기 주인공들처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홍동 여성들처럼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배울 만큼 배운 여자이다. 서울에서 일할만큼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만큼 기여한 후, 홍동으로 이주했다. 한 사람의 이주는 그녀가 몸에 지닌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이주>이다. 자신의 광기를 죽이며 착실히 살아가는 착한 여자가 될 수 없었던 그녀는 지역을 들쭉시키고 다녔다. 잠시의 배회가 있었다. 인간은 지향하는 한 방향한다. 지향 없는 방향은 없다. 지향과 방향의 뒤섞임으로 지역을 배회하던 그녀는, 2014년 무렵 아카이브라는 세계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지역활동을 개시했다. 결국 아카이브와의 우연한 조우가 그녀의 운명과 지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농사의 서사에는 다음과 같은 서사가 있다. 1만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한 여성이 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의 시작은 문명의 시작이었다. 때로는 기록의 서사에도 이런 장중함이 필요할 것 같다. 홍동의 한 여성이 아카이브의 씨앗을 지역의 이곳저곳에 뿌리고 다니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기록한다는 것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드나들며 새로운 사상과 문화로서 아카이브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여농과 아카이브가 만나서 홍동허스토리라는 친숙하면서도 독특한 이야기 작업을 낳을 수 있었다. 홍동허스토리의 절반은 여농에서 나왔고, 나머지 절반은 기록한다는 것의 가치와 의미에서 나왔다. 홍동허스토리는 말한다. 여성의 삶을 기록해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8, 3). 그리고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

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7). 이 두 개의 문장이면 족하지 않을까 한다. 좋은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야기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체화하는 것이 남았다. 여농은 성평등이 인권의 근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이야기라는 기록이 아카이브 활동의 근본은 아닐까. 흥동허스토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2) 평가와 선별과정

목표는 지역의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흥동허스토리를 통해 기록하는 것이다. 10년, 20년, 시간이 아무리 길게 걸려도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는 의지는 심장에서 뛰고 있다. 다만, 순서는 정해야 하고, 기준이나 절차도 세워야 한다. 흥동에서 농사짓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 낳아 키우며 살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일을 굳이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비혼으로 살거나 노년에 이르러 살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년간, 수십 년간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꾸준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관행적으로는 지역일이나 마을일로 분류되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면 무엇이 더 지역적일 수 있으며, 마을일일 수 있을까.

선정기준은 공적 활동, 분야, 연령 등으로 우선 구분했다.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에서 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리더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초대 여농센터장, 초록이동지조합 대표, (전)갯골어린이집 원장, 여성 마을이장). 둘째,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수십 년째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선정한다(유기농사, 특수교육, 피아노학원, 미용실). 셋째, 청년여성(청년 귀농/귀촌), 노년여성(할머니장터조합) 등 특정 연령대의 목소리를 듣는다(아카이브 활동가 인터뷰). 이런 세부기준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흥동허스토리가 실행되었다.

홍동허스토리 현황(2016~2019)

2016년 (4명)	초대여성센터장, 홍동미용실 원장, 홍동중 교사, 문당환경미용 사무국장
2017년 (3명)	농부/홍성아이쿵/여성센터 이사, (전)갯골어린이집 원장, 예술피아노 원장
2018년 (4명)	지역에 3년~8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20~30대 여성 4명 (1인 가구)
2019년 (9명)	여성마을이장(2명),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장터 조합원(7명)

각자의 일은 다르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전업농이든, 겸업농이든, 반농반X(오전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의 농사이든, 좌우시간 어디선가 어떤 형식으로든 농사를 짓는다. 설령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로 농사에 대해 말한다. 이 지역의 주류담론은 농사담론이다. 위에서 농부라고 표기된 사람은 그 중에서도 '전업농'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지역 내 공개추천을 거쳐,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이사회(초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 변경되었다), 사무국, 그리고 홍동허스토리 기획팀(프로젝트팀)이 함께 논의하여 선정한다. 이것은 홍동허스토리가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은, 홍동의 한 부분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홍동허스토리는 '물혀있는 여성 개인의 삶이 결국 홍동의 자랑이자 역사를 이루고 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아카이브 활동가 인터뷰).

사람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홍동허스토리의 의미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역에서 텃밭정원 활동을 하는 한 정원사는 이런 말을 한다. 식물은 생태적으로 홀로 자라지 않는다. 튼튼한 식물은 주변에 있는 작고 어린 식물을 보호하며 함께 자란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작물이 잘 자라도록 지지대를 받쳐준다. 홍동허스토리를 통해 연결되는 여성들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3) 방문

누가 할지 정해지면 아카이브 활동가는 기록화 작업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그곳을 방문한다. 여러 번 왕래하고 관찰하고 인터뷰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곳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그녀를 만나고 접촉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곳을 다녀가는 마을사람들도 탐문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동무여, 우리가 만일 개(犬)이거든 개인 체 하자. 속이지 말고 개인 체 하자! 그리고 땅에 엎드려 땅을 훑자. 혀의 피가 땅속으로 흐르도록, 땅의 말이 나올 때까지.”(조명희, 동무여 중에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은 타인의 시선과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는 육화된 자기언어로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몇 번이 적당한지는 사실 잘 모른다.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르면, 구술인 인터뷰를 할 때는 3회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인류학의 학문적 전통은 1년이고 2년이고 장기체류해, 참여관찰도 하는 식으로 라포를 형성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윤택림 2013). 하지만 이것은 ‘외지에서 온 전문가의 방법’일 것 같다. 이웃으로 지내면서 굳이 전문가로 자신을 내세울 일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다.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적정기술이 사실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연민과 환대의 문화이다. 전문가의 방식보다는 지역에서 추구하는 문화에 따르는 것이 상책이다. 아카이브 활동가와 허스토리의 그녀들의 만남은 연민과 환대의 분위기에서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물론 전문적인 방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서울에서 이미 언론활동을 했었다. 인터뷰, 취재는 따로 익힐 필요는 없긴 없었다.

물론 ‘수다’만 떨고 올 수는 없는 일이다. 구구절절 살아온 시간을 두서없이 말하다보면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란 일이다. 구체적인 목표점은 분명히 있다. 흥동허스토리의 밤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다. 어렵지 않다. <당신은 이곳에서(직업적 측면에서) 수년 간, 수십 년간 생활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해주세요.> 이런 빨래줄을 설치하고는 그곳에 걸릴 빨래(사진)를 선정해 나가는 것이다. 여농센터 일을 했다면 여농센터에 대해서, 할머니장터 조합이라면 조합 일에 대해,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에 대해서.

이제 남은 것은 ‘공연’이다. 방문지를 마침내 떠나는 날, 아카이브 활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심장의 별레에 대해 옷장의 나방에 대해, 찬장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긋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황인숙, 강). 흥동허스토리는 아카이브 활동가가 대신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설 때까지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할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를 함께 의논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으로 살아온 시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고무하는 것이다. ‘신뢰의 생산’이라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뢰감이 형성되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기록의 무대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긴다. 야밤이 오면서 공연의 막이 오르고 있다.

(4) 기록작업장

아카이브 활동가는 당일이 되면 기록작업장을 만들고 흥동허스토리를 진행한다. 첫째, 기록의 무대를 설치한다. 흥동허스토리는 지역의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다. 밝담도서관에서(2016년), 여농센터에서(2017년~2019년), 그리고 ‘오붓한 모처’에서(2019년 일부. 20~30대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말하

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따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나, 책으로는 출판되었다). 이것은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른 것이었지만, 공통점은 있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 기록의 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무대에는 두 개의 기록타자가 놓여진다. 한 곳에는 아카이브 활동가가 앉는다. 보다 화려하고 큰 다른 곳에는 이야기 주인공이 앉는다. 그 테이블에는 들꽃과 과일과 차, 그리고 녹음기가 세팅된다. 때로 한 기록타자에 같이 앉기도 한다. 그 주위를 마을청중들이 빙 둘러 앉는다. 타원형 배치에서 흥동 허스토리가 추구하는 평등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참여와 협력의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밖은 농촌 특유의 짙은 어둠으로 거의 모든 사물이 모습을 감췄지만, 기록의 무대가 설치된 실내는 밝고 화려하다. 이 날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기로 한 사진기록자는 열심히 현장을 사진에 담는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진기록자는 누구라도 말하는 그 사람의 환한 얼굴표정을 매력 포인트로 주목하는 것 같다. 그것은 그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기록방식이 아니냐 한다.

둘째, 소규모 기록전시회를 연다. 그것은 어느 저녁 단 몇 시간의 기록전시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마치 행위예술처럼 임장감이 있다. 그 장소에 있음으로써 비로소 특별한 것들이 나온다. 도서관에서 할 때는 서가 한 칸을 비워서 그 서가와 벽면을 이용해서 하고, 센터에서 할 때는 한쪽 벽면을 이용한다. 그때그때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기록물은 전시된다. 본 무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모두 기록전시를 뒤로 하고 앉았다. 그러면 기록전시는 가만히 기록의 무대를 지켜본다.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렇구나, 이것은 다른 활동이 아니라 아카이브 활동이구나.

기록전시는 정보를 제공하고 환대를 발생시킨다. 입장하는 사람들은 기록전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궁금함, 신기함이 있다.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기억의 폭발이 일어난다. 손가락으로 전시물을 가리키며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눈다. 그곳에 커피를 쏟을 수도 있다(일부러

쏟는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공공아카이브의 전시처럼 근엄한 분위기에 서 거리를 두고 볼 필요는 없다는 뜻의 은유적 표현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예를 들어, 그 날 청중으로 온 아들이 평소엔 보지 못했던 엄마의 사진을 찍는 식이다. 기록전시 속 인물이 누구인가보다는,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았는가 하는 질문이 내부에서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잠시 후 있을 이야기에 ‘기생하는 이야기’가 된다.

셋째, 공연을 주관한다. 당신이 직접 와서 말하란 말이야, 했지만 그녀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외롭게 혼자 말하게 하지는 않는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대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 또는 사회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그 모습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1부와 2부로 나뉘져 진행이 되는데, 1부는 ‘연설의 시간’이다. 대통령 연설처럼 거창한 연설은 아니지만, 허스토리 주인공들이 실제 하는 것은 ‘연설’이다. 여농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하는 발언이라는 점, 자기 삶에 대해 청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점에서 연설이다.

통상 구술로 번역이 되는 ‘oral’은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연설가(orator)’에서 연원했다. 소크라테스는 향연에서 대화체 연설을 했고, 이를 글로 정리한 것이 플라톤의 ‘대화편’이다. 민주주의 산실이라는 아고라 광장에서는 수사학이 바탕에 깔린 연설이 있었다. 또는 연설을 위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 수사학이었다. 향연과 아고라의 공통점은 말로 연설하며 오리지널 텍스트를 생산했고, 그 후 필요 시 글로 필사본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실 인류가 문자를 갖기 전에는 유구한 세월 서로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며 연설(이야기)을 했다. 서구의 역사에서 글로 쓰여진 텍스트가 원본 텍스트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은 중세 말이었다. 중세 말까지는 두 사람(연설가와 필경사)의 공동생산 형식으로 기록이 생산되었다(오토 루트비히 2013).

홍동허스토리를 이해할 때 이런 연설의 기록전통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구술과 방법론이 다를뿐더러 아카이브 활동가도 흥동허스토리(특히 기록작업장의 전시, 연설)가 구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이다(아카이브 활동가 인터뷰). 흥동허스토리의 이야기 주인공은 연설가이다. 다만, 혼자 하는 연설이 아니라 아카이브 활동가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연설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2부로 연장되어서는 마을청중들이 공감하며 덧붙이는 토막연설들과 섞이면서 일종의 집단연설이 된다. 흥동허스토리는 지역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공감하며 집단연설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생산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5) 출판

흥동허스토리는 책으로 출판한다. 이것이 과정의 마지막이다. 출판 작업은 기록탁자에 놓인 녹음기로 녹음한 것을 녹취로 푸는 것에서 시작한다. ‘밤늦은 시간까지 원고를 다듬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 머리를 맞대기를 수차례’ 하면서 쓰여진 텍스트가 완성된다. 이때 주안점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현장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입말을 살린다는 것이다. 출판된 책을 읽다보면 입말을 살린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말로 한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개성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말이 글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또는 듣는 이야기에서 읽는 이야기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것들이 있다. 목소리와 목소리 사이의 공백이 사라진다. 문장의 띄어쓰기와 비교해보자면, 문장의 띄어쓰기와 말할 때 음성과 음성 사이의 공백은 같을 수 없다. 때로 이 찰나의 공백에 커다란 사건이 지나갔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기록의 물질성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아쉬움보다는 두 개의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날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상징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받아들인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이야기와 책의 물질성으로 다시 탄생하여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야기, 이렇게 흥동허스토리는 두 개의 이야기로 존재한다. 책의 형식에 담겨 존재하는 이야기는 글과 사진이 협력하며 형성한 이야기이다. 사진 속 인물들의 밝은 표정에서 유쾌했던 당시 현장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참석한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점검을 받아서 가감하며 편집하는 것이다. 뜻을 함께 하는 마을동무들과 녹취록을 함께 풀고, 이야기 주인공이 다시 읽으며 수정한다. 책을 만드는 과정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책을 만드는 편집자도 지역에 있는 마을출판사에서 일하는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한 권이 책이 나오는 과정은 허스토리 행사에 참가한 지역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형식이 된다.

출판된 이후에는 배포를 한다. 여농센터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따로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곳에 책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책은 지역 곳곳과 타 지역 여성기관, 농업기관에 전달된다. 정부에서 여성정책을 만들거나 농업정책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책을 읽는다면 좋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은 책이 경향각지로 배포된다.

엔딩은 따로 있다. 소박하지만 화려한 출판기념회를 한다. 당일엔 참석했던 사람들과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모여 든다. 이 자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책 읽은 소감 등을 나누는 자리이다. 아, 다시 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부르고, 이렇게 나온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부른다.

이상이 흥동허스토리의 추진과정이다. 흥동허스토리는 구술(사전 인터뷰), 수집과 전사, 연설, '집회'(통제되지 않은 이야기 모임. 여러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참가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출판 등 여러 기록형식이 섞여서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 성격의 '아카이브 기계'이다.

3) 특징

(1) 삶의 채종

멀리서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생산, 공유, 체화하는 장면이 보인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흥동허스토리의 지역성이다. 흥동허스토리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다른 일도 하면서 지내는 여성들의 이야기 작업이다. 흥동허스토리에서 이야기한 20명의 여성들과 그 야밤을 지킨 청중들은 ‘농촌과 농사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는 것에 정말이지 스스럼이 없었다. 흥동에서는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019년 흥동허스토리의 이야기 주인공이었던 할머니장터 조합의 70~80대 여성들(7명)은 ‘무엇보다 직접 농사지어 만든 음식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을 나누는 일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자부심 어린 말을 했다. 2017년 허스토리 주인공이었던 ‘농사의 달인’은 이런 말을 했다. “보람된 건 많죠. (웃음) 제가 농사짓는 이 규모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죠. 눈을 30마지기 하는데 제가 기껏 먹어봤자 2마지도 못 먹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냐. 제가 몇 사람의 식량을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전 큰일을 한다고 보는데~ (웃음).”(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8, 24). 그녀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농촌에 산다는 것,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애정, 열정,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사의 언어로 흥동허스토리 특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흥동허스토리는 하나의 이야기 작업이자, 마을아카이브를 실천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마을아카이브를 이해할 때 지역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지역성은 농사이다. 농사에 대해 말할 때는 농사의 언어로 말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것이 농사의 언어로 흥동허스토리의 특징을 기술해보려는 이유이다. 여기서는 농사의 언어 중에서 '채종'의 은유로 살펴본다. 채종은 씨앗을 받는 것을 말한다.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늦가을에 채종을 하면서 이듬해 농사를 준비했다. 그 해의 수확물 중에서 제일 튼튼한 것으로 골라 씨앗을 받아 한겨울 동안 정성스럽게 보관하다가 봄날이 오면 대지에 씨앗을 뿌린다. 그 해 가을에 수확을 하면 다시 채종을 하고, 그 채종된 씨앗으로 또 새로운 농사를 짓는다. 채종에는 이런 자연의 순환성이 담겨 있다.

그녀들은 늦가을/겨울이 오기를 기다렸다(매년 흥동허스토리는 11월~12월에 열린다). 바쁜 농사철을 피해 다소 한가로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린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풀무학교의 역사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농민들의 겨울공부이다. 한동안 풀무학교는 겨울마다 농민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농사의식(정치의식)을 고양해야 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었고, 그런 노력을 경주했다. 지금도 흥동에서는 이런 전통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다. 바쁜 농사철을 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겨울 농사'를 짓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11월을 기다렸다.

그렇다면, 육체를 가진 구체적인 개인에게 겨울농사의 요체는 무엇일 수 있을까? 이야기 작업은 삶을 채종하는 것이다. 이것이지 않을까 한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찬찬히 되돌아보고 그 중에서 순환적인 삶으로 삼을 사건을 골라내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이야기 작업의 채종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작물은 씨앗으로 출발해서 성장한 후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순환과정으로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일 것 같다. 인간이 자기 삶을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 형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런 채종은, 삶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것을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흥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7). 씨앗이 풍토에 적응하며 자라듯이,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해가며 살아가

기 때문일 것 같다. 인간에게 언어(이야기 포함)는 본능이다(스티븐 핑커 2008, 파스칼 외 2011). 인간을 말할 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만나 교류하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은 자신의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되는 순간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은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여럿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다보면,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야누스적 상황이 아닐까 한다. 야누스는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살면서 처하게 되는 야누스적 상황은 어떤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아카이브는 야누스적 상황에 개입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흥동허스토리라는 아카이브 활동이 그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야기 작업은 야누스의 시선으로 삶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야기 끝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살아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2) 마을공동체문화의 채종, 공동체의 균형과 지속

20세기 들어 관행농이 일반화되면서 농민들은 종묘상에서 구입한 상업용 씨앗과 정부에서 보급하는 개량종을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것은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작물에서 직접 씨앗을 받는 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토종종자의 급격한 소멸뿐만 아니라, 농사능력의 축소, 채종문화의 소멸 등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토종종자 보존운동이 경향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씨앗도서관 운동이다. 흥동에도 흥성씨앗도서관이 있다. 여기에서 지역을 다니며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었다. 대체로 여농이 채종의 담당자라는 점이다. 늦가을에 채종을 하고

채종한 씨앗을 관리하는 농민은 여농이다(남성농민들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흥동의 할머니들은 젊은 시절 시집을 오면서 친정어머니가 챙겨주는 씨앗으로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웠다. 시어머니는 출가하는 딸에게 씨앗을 챙겨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같이 사는 며느리에게 씨앗을 넘겨주었다(흥성씨앗도서관 2019).

채종은 장구한 세월 동안 여농이 존속시켰던 문화이다. 이 유구한 문화 속에 흥동허스토리는 자리를 잡고 있다. 그녀들은 늦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신들이 여농으로 살아온 삶을 이야기로 채종했던 것이다.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흥동허스토리에 개인성과 사회성이 있다면, 사회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마을공동체문화와 흥동허스토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노동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것들을 좀 더 값지게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흥동허스토리는 ‘용기 있게 도전하고 연대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물론 이런 여성들이 특별하게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실상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목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채종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록컬렉션을 구성하는 하위 단위에 기록계열들이 있다. 인간의 삶도 다양한 계열의 삶들의 집합이지 않을까 한다.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선별해서 기록하느냐는 것이 결국 논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누가 대신 기록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흥동허스토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말하고 기록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흥성 여성농업인센터 2017, 7)에서 나왔다. 그런데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특이한 점은 있었다. 흥동허스토리의 현장 분위기가 유쾌한 분위기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흥동허스토리가 담으려고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마을을 함께 일군 여성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일 것 같다. 당당할 수 있는 삶이 그녀들의 뒤에 있었다. 흥동허스토리는 논쟁의 언어가 아니라 친밀한

대화의 언어로 용기와 도전, 그리고 연대의 삶을 담았다.

농촌의 농사문화가 오랜 세월 지켜온 공동체문화가 있다. 흥동허스토리의 특징을 이 관점에서 살펴본다. 흥동허스토리는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런데 농촌의 실상은 어떨까?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국토교통부 2018)에 따르면, 도시지역 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1960년에 39.1%에서 2017년 현재 91.8%를 차지한다. 농촌지역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다.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농사 인구는 242만 명인데, 이는 총인구의 4.7%에 해당한다. 농사인구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고령화는 도시보다 심각하다.

농사의 위기는 인류가 1만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경험의 위기이기도 하다. 농민의 소멸은 인류가 살아온 농사경험의 소멸이다. 농업 수확량은 점점 늘어나지만 농사 이야기는 소멸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직장생활, 도시생활 이야기는 늘어나는 반면, 농사 이야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류가 진정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기록문화유산은 인류의 농사경험(이야기)이지 않을까 한다. 누구라도,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건 농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농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농사 이야기가 필요하다. 물론 한 명의 농부가 인류의 모든 농사경험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여농의 이야기를 채종하고 다시 농사짓는 상징적 장면인 흥동허스토리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흥동의 여농들은 정치학 교과서의 용어를 사용해서 정치적인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평이한 말도 한다. ‘지역일’, 또는 ‘마을일’. 개인의 사적인 삶에 머물지 않고 “마을에 나가” 마을사람들의 공통적인 이해가 걸린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골치 아픈 일이다. 2019년 흥동허스토리에 등장한 한 여성 마을이장은 2005년에 마을이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충남 홍성군에서 처음

등장한 여성 마을이장이었다. 그 때, 같은 마을에 사는 친정어머니는 걱정하며 반대했었다고 한다. “왜 여자가 남자 일을 하느냐. 이장일 하다보면 동네에서 이런저런 말 듣는 일도 많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9, 16). 그러나 계절이 바뀌었다. 남편은 격려하고 10대 자식들은 ‘우와~ 엄마가 이장님 됐어?’ 하면서 자랑스러워했다. 마을일은 한다는 것은, 마을단체에서 일하거나, 여성 마을이장 일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각성한 부녀회장 일을 하거나(부녀회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 어디에서 일하던 마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마을일은 결국 자신들이 속한 마을공동체를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 정치이다.

마을공동체문화를 평등한 문화로 만들어가는 정치에는 ‘여농의 이야기 작업’도 있을 것이다. 평등한 문화는 ‘관계성의 문화’를 의미하고, 나아가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도시공동체로 알려진 서울의 성미산마을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마을공동체를 지탱하는) 그러한 문화양식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갖는 ‘공동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며 무의식에 침잠된다. 마을의 초기 멤버들이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거나 감수성을 자극했던 공동의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신입멤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마을의 문화는 이렇게 형성되며 한번 형성된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DNA처럼 유전되면서 마을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한다.”(김영선 외 2014, 78-79). 이야기를 마을공동체의 DNA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야기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존속하는 힘이 된다는 얘기이다. 물론 평가와 선별이 필요하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DNA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DNA 발생의 순서와 리듬이 정해진다. 흥동허스토리도 이런 맥락에서 마을공동체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

흥동허스토리는 여농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참가자의 면면이 이채롭다. 20대에서 70~80대 여성까지 참여했다. 공간적 측면에서도 이채롭다. 여성

들의 일상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미용실과 분명하게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어서 남편들이 그 곳에 좀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여농센터가, 할머니 반찬가게와 갓골어린이집이, 여성 마을이장의 장소인 마을, 면사무소와 피아노학원이 홍동허스토리의 서사적 장소가 되었다. 요컨대, 홍동허스토리는 마을의 본래 모습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다양성의 추구는 평등을 기초로 한다. 평등한 존재들이기에 다양한 자기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홍동허스토리는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는 가치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아카이브 사건이고, 구체적으로는 다양성을 실천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견인한다는 식의 운동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 홍동허스토리는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다 내놓고 한다. 기록한다는 사실보다는, 수집한다는 사실보다는,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태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어가는 것은 ‘홍동허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고 여겼던 홍동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9, 6).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육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되돌릴 수 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용기도 낼 수 있다. 그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함으로써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에서라면 듣는 사람(청중의 자리)도 용기를 내서 화해의 말을 건넬 수 있다.

홍동허스토리 행사는 오픈된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이런 말을 한다. “행사는 오픈하여 진행합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죠.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마을의 역사를, 이웃의 역사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② 오래된 이웃임에도 ‘홍동허스토리’라는

형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이웃의 역사를 새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③ 참석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도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과 추억에 새삼 놀라고 감사할 수 있죠. ④ 당연하게 누려왔던 마을의 편안한 시설이나 좋은 문화들/행사들/단체들이, 실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많은 노력을 거쳐 생겨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⑤ 참석자 스스로도 대다수 처음에는 ‘내가 살아온 게 별게 아니라며’ 참석을 주저하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스스로도 자기 일과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참석자들의 소감(‘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다. 감동이었다. 마을을 지켜오고 가꾸고 만들어온 이웃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싶다’ 등등)을 듣는 데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잘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했던 순간에 대해 말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에 대해 예찬을 하게 됩니다.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지역 내 농촌여성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활동으로 자리 잡는다는 느낌이 듭니다.”(아카이브 활동가 인터뷰).

부녀회와 마을회관을 뒤흔쳐나온 여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었다. 여농은 그런 정치적 공간이었으며, 그런 정치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아카이브 활동도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흥동허스토리는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유쾌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식을 각성, 고무, 제고하는 정치학습의 시간이 되었다. 흥동허스토리의 효과는 평등한 마을공동체문화를 만드는 정치교육의 효과일 것 같다.

기록학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민주주의가 있다. 아카이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카이브에 담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이런저런 가치이다. 아카이브에서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이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카이브에 갈 때마다 발에 차이는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을아카이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마을아카이브는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장치이다. 흥동허스토리라는 이 위대한 계보에 속한다. 위대한 아카이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결사체를 조직하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직접적 행동을 하는 아카이브이다. 또는 변혁운동의 일부로 참여하여 세상을 변혁하는 일에 복무하는 것이 위대한 아카이브이다. 위대함에 복무하는 아카이브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흥동아카이브가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흥동의 한 아카이브 활동가를 찬찬히 따라가면 흥동아카이브가 얼마나 위대한 아카이브인지 이해할 수 있다.

4. 흥동허스토리의 기록학적 의의

1) 아카이브의 문화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기록문화는 기록관리와 함께 사용되는 말이었다. 기록관리가 실제적 활동이었다면 기록문화는 일종의 지향성이었다. 기록관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과 함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라는 말도 공공기록관리의 공식서사에 들어 있었다. 4장에서는 이런 기초를 수용하면서도 미시적으로 접근해 ‘아카이브의 문화’는 다뤄본다. 그것은 아카이브에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카이브는 기록의 집이다. 이 집에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

4장에서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기록관리시설과 기록관리직, 기록물이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아카이브이다. 웹 공간의 아카이브도 포함한다. 둘째, 대화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서사적 장소로서 아카이브이다. 셋째, 사람들의 육체에 깃드는 이미지(심상)로서 아카이브이다. 물론 논리적 구분은 이러하나, 실제에 적용될 때는 혼재되어 사용될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는 구분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4장에서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가치 있고 자유롭게 만드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삶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이해하면서 정치적,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그것은 올바른 규범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규범으로 살기 위한 노력이다. 물론 하나의 문화, 하나의 규범이 있다는 총체주의적 접근은 곤란할 것 같다. 이 글이 미시적 접근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시적 접근이란, 복수의 문화가 있다는 것, 무엇이 가치 있고 자유로운지는 꼭 하나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갈등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차이를 인정, 지지, 연대하면서 보존하는 것)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로 좁혀서 말해본다면, 아카이브도 그 고유한 문화를 가진 사회적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아카이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그들은(아카이브 종사자와 아카이브 이용자) 왜 아카이브에 가는가, 어떤 욕망이 그들을 이끌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런 관계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아카이브에는 그 나름의 고유한 정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정서가 지배적인지. 정서들 사이의 위계가 혹시 있는가, 있다면 왜 그런가. 이런 계열의 질문을 던지면서 아카이브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은 어떤 노력을 통해 가능한지, 구동존이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다른 곳에 보급해도 되는지, 보급해야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공공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를 홍보하는 영상을 보면 여전히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아카이브는 기록물이 모이는 곳, 정보가 모이는 곳, 역사가 보존되는 곳. 그러나 아카이브는 그런 곳인가. 너무 오래 사용한 레토릭이 아닌가. 아카이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세상의 욕망이 모이는 곳,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고 관리되면서 보존되고 배양되는 곳일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서울기록원 보존서고에는 좋은 기록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기록물만 있는 텅 빈 물리적 공간인가. 잘 관리하면 능사인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려본다. 서울기록원에는 빛이 잘 들어오는 카페가 있다. 서울기록원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곳인가, 아니면 기록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곳인가.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그런 대화는 기록학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보존서고에 들어가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카이브의 특정 장소에서, 특정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 사라지는 말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모여 앉고 걷는 이유, 그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아카이브의 문화’는 이런 문제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틀이다.

2) 아카이브의 직접적 서비스

야밤의 흥동허스토리, 사람들이 아카이브(여농센터)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성평등의 욕망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허스토리)를 생산, 공유, 체화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여기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록물이 생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보다는, 이런 아카이브 풍경에서 우리는 어떤 아카이브 문화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카이브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육체적 만남, 대화, 교류에 대해 살펴본다.

누군가의 부고를 접했을 때 빈소에 가지 않고서도 조용히 집에서 명복을 빌며 애도할 수도 있다. 부조금을 보내거나 조화를 보내는 방식으로 애도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를 이끌고 빈소에 가서 하는 애도는 조금 다르다. 빈소에서 영정을 가만히 쳐다보고, 빈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를 의식하고, 불빛 아래에서 있는 유족들의 슬픈 표정을 접하는 순간, 알 수 없는 정서적 감동이 일어난다. 그곳에서 몇 마디 말로 유족을 위로하고 자리를 옮기면 다른 문상객들을 만날 수 있고, 한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애도는 망자와의 1:1 관계가 아니라 망자 외의 사람들과의 1: 多의 관계에서 행하는 애도이다. 장례식장의 빈소는 먼저 간 사람을 애도하고 유

죽을 위로하는 곳이지만, 상주와 문상객들, 문상객들 상호간의 육체적 만남, 대화, 교류의 장소이기도하다.

여농센터는 자신을 아카이브 활동가로 이해한 사람과 그녀가 주도하는 아카이브 활동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고, 듣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아카이브였다. 애초부터 아카이브 건물로 지어지거나 그 용도로만 사용되는 전문시설은 아니긴 하지만, 허스토리가 진행되던 순간에는 아카이브였다. 그곳은 이야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머무르고 교류하는 아카이브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여농센터가 지역 내 여농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아카이브 활동가가 아카이브라는 곳을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감정이 발생하고 고양되는 곳으로,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인지하고 실천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기록전문직이 기록관리가 아니라며 무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관리대상으로서 기록물이 없어도 아카이브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사례가 아닌가. 시골마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마을에 개방적이었던 여농센터의 특성 때문에, 한 ‘광기의 아카이브 활동가’ 때문에 벌어진 우연한 사건은 아닐까. 대도시의 대형 아카이브(예. 서울기록원 같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서울시에서 라키비움 개념으로 짓고 있는 평창미술관 같은 곳)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저녁 6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 기록관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은 디지털 아카이빙에 주력해야 할 때다, 전자기록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먼저이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비현실적이다, 그런 건 마을아카이브 같은 곳에서나 가능하다, 예산이 없다, 근거가 없다. 이런 반응에 익숙해 지다보면 흥동허스토리는 마치 외계의 사건처럼 보인다.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대도시의 대형 아카이브인 홍콩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s) 사례는 균형감 있는 시선을 던져준다.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는 ‘동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예술활동과 자원, 아이디어의 디지털 구심점이자 촉매제'를 지향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수요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를 위한 직접적 서비스를 작가와 전문가가 이끄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다(조민지 2020, 205-208). 이곳에서는 "아카이브를 활용한 교육, 워크숍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민지 2020, 206).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는 시대적 흐름인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육체를 아카이브의 건물 안으로 진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아카이브 이용자들을 아카이브 건물 안에 한동안 머물게 하면서 만남, 대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직접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시민이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아카이브와 시민의 만남과 교류는 전통적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에서 수행했다. 그런데 '직접적 정보서비스'를 굳이 언급해야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수용,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시대적 추세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조민지 2020). 시간이 더 지나 '디지털문명'이 일상에서 지배적 문화가 된다면, 아카이브의 기록서비스=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도식이 일반적인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직접적 정보서비스를 모색해야 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문화'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물론 대형 아카이브도 이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카이브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 중에는 이런 노력을 함에 있어 부단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 배우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아카이브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노력을 접할 때면 무지로부터 각성과 배움 말고는 없었다. 아카이브의 문화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와 힘도 그런 순간들에서 연원한다. 비록 이 글에서는 서술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못하지만 아카이브의 문화를 가르쳐준 대형 아카이브 종사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의사를 보내고 싶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런 시도를 인용하기보다

는, 이 글을 쓰는 필자의 경험 범위 안에서 논의를 이어가 본다.

필자는 4.16 기억저장소에서 몇 개월 동안 청소년들과 기록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2019년). 그곳에는 ‘기억교실’이 있었다. 기억교실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실을 옮겨와 재현한 것이다. 기억교실의 책상에는 그 책상에 앉았던 학생의 개인기록이 놓여 있다. 그런데 기억교실에는 보존과 전시, 열람이 동시에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억교실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잊지 않게 지키겠다는 뜻이다. 기억교실은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우리는 기억교실로 서서히 이동하다가 각자 흩어졌다. 기억교실의 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보존-전시-열람이 동시에 펼쳐지는 책상 단위별 기록’을 마주했다. 마치 기록의 안으로 들어가 기록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이 순간, 육체로부터 멀어지는 아카이브와 육체적으로 호응하는 아카이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기억교실의 책상에 앉아 기록을 손으로 만지고, 펜을 들어 무언가를 쓰고, 사진을 바라보고 책상의 감촉을 느끼고 그러면서,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 그가 맺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2014년 이후의 일들에 대해, 사람과 기록의 관계성에 대해, 그리고 이런 저런 일들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만나서 글을 쓰고 낭독을 하고 대화를 나눴다. 어떤 육체적 느낌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감하며 대화를 나눴다. 4.16 사건과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이 생겼다. 정서적 교류를 먼저 하지 않으면 기록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7살 청소년들의 시선은 명확했다. 기억교실에 간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것이고, 아카이브 활동을 하면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국가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각성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사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민이 되겠다는 의지라고도 했다. 아카이브를 대하는 태도에 양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기억교실의 보존-전시-열람의 동시적 효과가 주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아카이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다. ‘야밤에라도 충동에 못

이제 아카이브에 가고 싶다. 아카이브에 가서는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아카이브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아카이브에 왔으니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책이 아니라 아카이브 종사자의 육성으로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 그들의 상상하는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싶다. 잘 정리된 기록물을 서비스 받을 때도 그것을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열람실에 앉아서 기록을 보면서도, 그리고 다 열람하고 나서도 아카이브 종사자와 (홍동허스토리처럼) 육체적으로 만나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기록전시가 기본적으로 마임이나 연주회, 낭독회가 함께 열려서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커피를 손에 들고 들어가고 싶다. 커피를 들고 기록전시를 보다가 전시된 기록물에 커피를 쏟는다면, 쫓겨나기 보다는 그 커피가 묻은 기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 상대가 아카이브 종사자이든 기록생산자이든, 전시 속 인물이든, 같이 갔던 동무들이든 상관없다. 아카이브의 어딘가에 주저앉아 (홍동허스토리처럼) 점거농성하면서 유희를 즐기고 싶다. 아카이브를 방문한 사람이기에, 아카이브 방문자의 자격으로 아카이브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작은 흔적을 남기고 증식하고 싶다. 아카이브를 방문한다는 것이 아카이브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카이브와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욕구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이지만, 논의를 확장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대형 아카이브가 있기도 하거니와 (예. 서울기록원의 2020년 5.18 전시), 아키비즘(Archival Activism)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전문직 아키비스트의 윤리에서도 고무된 바도 있기 때문이다(아키비즘은 3절에서 상술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대형 아카이브의 직접적 정보서비스에 관한 몇 가지 이미지를 펼쳐본다.

첫째, 아카이브 종사자가 그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좋은 기록컬렉션을 열람실에 펼쳐놓고는 다양한 그룹의 학생들, 시민들과 모여서 비치된 카탈로그를 가지고 같이 조사를 시작하고, 열람청구를 해서 같이 읽고 토론하고, 이와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활동을 전개하면서(예. 전시, 낭독,

출판 등) 몇 개월을 함께 지내는 것이다. 물론 보다 장기간도 가능할 것이다. 아카이브 종사자와 시민들이 ‘고유한 아카이브 문화 속에서’ 질적으로 상호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둘째, 기록전시회가 열리는 날, 아카이브 종사자가 전시의 한 구성요소로 등장하는 것이다. 기록전시를 할 때면 다양한 기획을 하고 증강현실 같은 기술적 환상을 심고 도슨트를 일시 채용하기도 한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런 요소 중에서 아카이브 종사자도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 수 있을까. 그것은 아카이브 종사자가 기록전시를 시민들과 만나는 좋은 자리라고 여겨서 근무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다. 아카이브 전문직의 경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곱팡이와 스테이플과 전자파일을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마나는 것이 더 흥분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기록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아카이브 종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 한다.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관심사는 뭐고, 기록관리에 대해, 아카이브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카이브 종사자와 기록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다. 아카이브 이용자에게는 이런 궁금함과 갈증이 있다.

아카이브 내부에 은둔해 있을 이유가 없다. 문서로만 말할 이유도 없다. 아카이브 종사자는 자신의 육체를 과감히 드러내서 시민들과 지근거리에서 만나야 한다. 자신의 육성으로 아카이브가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에 대해 말하며 시민들과 밀도 있는 기록대화를 나누는 아카이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조직의 논리와 언어는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오는 것이 좋겠다.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습득한 전문적인 경험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런 ‘개인적 대화’에서 깊은 신뢰감을 얻는다. 대형 아카이브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직접적 정보서비스를 시민들이 알아채고 자기의 사회적 권리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자기가 사는 곳 근처의 아카이브를 만남, 대화, 교류의 장소로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반복성이 아카이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직접적 정보서비스는 아카이브를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이용한 것이고 아카이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하는 노력이 될 것이다.

대형 아카이브는 대형 아카이브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술적 장치들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형 아카이브의 직접적 정보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아카이브를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꾸준히 인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아카이브 종사자와 시민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직접 겪고 체화하는 아카이브 경험을 통해 ‘아카이브의 문화’를 체득하고 증식해가지 않을까 한다. 이미 여러 사람들의 선구적인 노력에 의해 기록원이라는 투박한 이름 외에 ‘기억발전소, 기억저장소’ 같은 이명(異名)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아카이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기록에 관한 것들을 문화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곳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감각은 도서관 건물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도서관에서 지냈던 각자의 시간과 그 속에서 있었던 사건 등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도서관을 만남, 대화, 교류의 장소로 체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

논의를 줄여야 할 것 같다. 아카이브는 전통적으로 기록물을 보관하고 서비스 하는 곳이지만, 다른 사회적 의미도 가질 것 같다. 아카이브는 민주주의 가치가 배양되고 증식되는 장소,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발신하는 장소, 기록과 연결되는 다양한 활동의 출처이자 근거, 물리적 공간, 서사적 장소, 이미지(심상)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아카이브는 기록한다는 것이 필요할 때 누구라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아카이브의 정치적 기능은 이 지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아카이브의 정치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아카이브와 시민 그리고 시민들끼리의 만남, 대화, 교류에서부터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3) 돌봄의 윤리와 쾌락의 추구

(1) 돌봄의 윤리

아키비즘이 주장하는 돌봄(보살핌)의 윤리(An Ethic of Care)에 주목하게 된다. 돌봄의 윤리는 아키비스트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도전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공공아카이브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아키비스트 윤리강령도 아직은 아카이브에서 현실적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문서로 존재한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지평이 공동체 아카이브로 넓혀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아카이브의 내적 욕구가 팽창한다기보다는 소수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아카이브 종사자들은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키비스트의 태도, 역할, 방법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을 하려면 공동체에 가야 한다.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럴 때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조력자(Community facilitator)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다. 공동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키비스트는 기록학이 상징하는 전문직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공정, 중립, 객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가만히 자기 자리 지키며 기록관리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한 공동체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라는 경고가 공동체 내부로부터 강한 폭풍으로 밀려온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하자고 이려고 있는가, 그들을 위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든다. 두려움도 밀려온다. 전문직 종사자로서 정체성의 혼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지식이 무용해지는 상실감

이 그것이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길로 들어서 있다는 자각을 어렵게 하는 순간, 어떻게 대등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에 진지해진다.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자각, 아카이브 활동에 더 다양한 윤리가 필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때 마주하는 것이 돌봄의 윤리이다(이현정 2017).

돌봄은 장구한 세월 여성이 전담하는 사적이고 비가시적인 노동이었다. 그런데 연민, 상호의존성, 유대감, 공감 등의 가치로 돌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제 돌봄은 보편적 도덕이 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에서 양성의 도덕적 원리가 되었다. 그리고 돌봄은 인간과 동물의 상호돌봄의 도덕적 원리, 농부와 자연, 또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돌봄의 도덕적 원리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돌봄은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응답에 기반을 둔다. 또한 돌봄은 쌍방향적인 상호성을 중시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관계성'에 기반을 둔다. 이럴 때의 관계성은 목적과 가치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수단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과 가치인 이상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지 않을 경우 내적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교육농협동조합 2019. 이현정 2017. 조한혜정 외 2006).

돌봄의 윤리로 아카이브 문화를 이해하고 증식시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의 의식에 끼치는 영향, 체득과 공감의 경험을 기록영역으로 확장하여 인간의 잠재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는 잠시 중단하고 상대의 특수한 요구에 응답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냉담하고 엘리트적인 제도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서적인 이용자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폭력적인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아키비스트의 경우는,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참여와 교감을 통해 정서적 친밀함과 정치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기록화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이현정 2017).

세 번째를 상술해본다. 폭력적인 사회적 사건을 겪고 있는 공동체에서 아카이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심리적 참전’이다. 참여라는 말을 쓰기에 상황은 너무도 엄중하다. 피해 당사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아카이브 활동가도 극도의 긴장감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사건의 사실적 측면은 단순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적 사건의 정서적 측면은 그럴 수 없다. 피해 당사자의 정서에 감응하는 정동적 작업이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참사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슬픔, 애도, 상실, 분노, 불안, 외로움, 사랑 등 현장 속 정동의 목록들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이경래 2017, 70). 정동적 작업은 기존의 기록관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영역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아키비스트에게는 정동의 영역이 직면해야 할 기록현장이다(이경래 2017).

농촌 지역에 자리를 잡은 일본의 한 식당은 특별한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노인들이다. 그들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환한 표정으로 주문을 받고는 주방으로 간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신이 기억하는 음식을 주방에 대고 말하기 때문이다. 짜장면을 주문한 손님은 짬뽕을 먹게 되고, 짬뽕을 주문한 손님은 짜장면을 먹는 식이다. 그러나 손님들은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음식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 예상하지 못한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손님들은 이 식당이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기에 의외성의 식탁을 기꺼이 받는다. 이 식당의 이름은 행복식당이다.

국가가 치매노인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치매노인들을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살피는 방법이 있다. 국가는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전문가, 예산, 정책 등을 투입한다. 필요한 방법이다. 돌봄노동이 여기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행복식당이 말해주는 것은 다르다. 행복식당은 지역의 치매노인을 시설이나 집이 아니라 지역에서 돌보는 공동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치매노인들은 이웃 주민들

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을식당에서 일하면서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며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있다. 자신을 탈시설함으로써 자신을 관리대상에서 해방시켰다. 그들은 자신을 관리대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형시켰다. 그것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기돌봄을 실천하는 돌봄의 주체로의’ 변형이다. 자기변형을 통해 그들은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가 될 수 있었으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도 지킬 수 있었다.

홍동허스토리의 이야기 주인공인 할머니장터 조합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 “(면사무소 근처 로컬푸드 1층 매장 반찬가게인) 할머니장터는 일터이기도 한데, 우리한테는 삶의 활력소예요. 집에서 맨날 혼자 있으면 뭐하고 있겠어요. 여기 나와서 일도 하고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만나고 참 좋아요. 지금까지 재밌고 좋았거든요. 수다도 떨고, 언짢은 것은 또 금방 풀어버리고, 일곱 사람이 같이 몇 년째 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 각자가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9, 67).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프고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집안일도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들은 다들 나오고 싶어 한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각자 노력해서 번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즐거움과 보람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동치미나 곁절이, 홍어무침 같은 음식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감사해하며 사가는 것에서도 보람을 느낀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소외되고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주는 힘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9).

홍동의 아카이브 활동가는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 했다. “작은 빗방울이 세상을 푸르게 하듯이,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네요.”(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8, 7). 홍동의 가치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가 있다.

작다는 말은 크다는 반대말이 아니다. 그것은 ‘적당하고 적절한 규모와 기술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만약 아카이브 활동가가 정부나 정당, 의회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작은 꿈의 범위(정책의 시행범위)는 클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국가 전체적인 규모가 적당하고도 적절한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카이브 활동가는 흥동에서 가족과 단란하게 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흥동 지역에서 일하며, 자신에게 다가오거나 자신이 다가가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웃들의 꿈을 지켜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녀에게 적당하고도 적절한 규모와 기술, 또는 작은 것은 직접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관계, 또는 이웃인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꿈을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직업적 활동)은 무엇일까? 그녀는 흥동허스토리라는 아카이브 활동을 선택했다. 그녀에게 아카이브 활동은 내용적으로는 “흥동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담는 일”(흥동여성농업인센터 2018, 7)이다. 전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본령이다. 좋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 이런 정보제공이 없이는 아카이브란 존재하기 힘들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담는다는 것은 뭘까?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치료는 건강을 그의 육체에 담는 일이다.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학적으로 먼저 정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건강하다는 개념이 없이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학적 실천은 질병을 제거하기 위한 병리학이기는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전하는 것과 담는 것이 연결되는 상황’도 아카이브에 속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다. 흥동허스토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록사건이다. 흥동허스토리는 꿈을 ‘고되게’ 꾸며 살아온 그녀들의 이야기를, 그녀들의 목소리로 전하고 그녀들의 육체에 이야기를 담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한 인간에게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꿈꿔왔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육체에서 언어로 나왔다가 다시 변형된 언어로 육체로 돌아간다. “타인의 머릿속에 특별한 생각을 붙여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생소한 존재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과거의 편린들과 미래의 꿈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나 상상의 존재를 마음껏 떠올리게 할 수 있을까? 입으로 소리를 내기만 하면 된다.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파스칼 피크 외 2011, 5). 인간은 우주 저 멀리 자신이 보지 못한 것까지 상상하고 언어화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하나의 이미지로 육체에 담아 둔다. 이것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에게 언어는 본능이다. 언어를 사용하면서 진화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기록을 발명하여 사회를 운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들은 *홍동허스토리*에서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했다. 자신이 아카이브 활동가라 말하며 마을공동체의 한 기능(아카이브 기능)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홍동허스토리*를 만들었다. 낮에는 그녀들을 만나서 대화하며 이야기를 만들었다. 야밤에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공유하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육체에 허스토리를 담았다. 나아가 그것을 책으로 다시 기록하여 말하는 이야기를 읽는 이야기로 변형시켜 세상에 전함으로써, *홍동허스토리*를 생전 처음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통해 허스토리를 육체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떤 아카이브인가? 여기에는 어떤 윤리가 들어 있는가? 이 아카이브에는 어떤 문화가 들어 있는가? *홍동허스토리*는 상호돌봄의 공생적 삶을 실천하는 아카이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 쾌락의 추구

여기에는 권태가 없다. 아카이브 건물에 배겨있을지도 모를 권태로움에 대해, 시골마을의 야밤 아카이빙은 뭐 그렇게 권태로울 일이 있겠냐며 반문

했다. 권태가 빠져나가자 ‘유쾌한 정의를 보았다’는 환호 섞인 분위기가 번졌다. 몇 십 명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어둠을 위협했다. 아카이브 활동가는 이런 말을 했다. “유쾌하고 따뜻했던 당시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면 좋겠습니다.”(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7). 홍동허스토리는 활기찼다. 야밤에 집단으로 모여서 웃고 떠들며 성차별을 성토했고 평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장소로서 아카이브 건물에는 서로를 감싸는 체온이 있었다.

그녀들은 두려움, 불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누구의 인생인들 고단하지 않았으며 두려운 날들이지 않았을까.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의 끝으로’ 밀려난 것 같아 공포에 떨었던 외로웠던 순간들은 잠시 미뤄두었다. 이것에 대해 말해야 할 장소는 따로 있었다. 이번에는 돌아볼수록 신기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타인과 함께 할 때의 기쁨에 대해, 그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쪼대를 세워서 살았던 시간이었지만 타인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었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장터 여성들은 말한다. “반찬가게를 혼자 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여럿이 하다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지 하면서 길게 계속할 수 있는 거 같아요. … 음식 만들 때 물론 취미와 소질이 있어야 하겠지만, 만들 때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하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음식도 더 잘되고 영양도 만점인 것 같아요.”(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9, 63-64).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분위기만 잡히면, 또는 말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홍동허스토리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술술 털어놓는다.

왜 슬픔을 먼저 이야기하고 기쁨은 나중에 기억할까. 그 반대의 순서는 적용될 수 없을까. 기쁨이 먼저 탄생하고 슬픔은 그 뒤를 따르면 더 좋지 않을까. ‘유쾌한 정의’를 말하는 와중에 쾌활하게 상실에 대한 애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흥동허스토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시골마을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전파할 목록 중에서 유쾌함이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일 것 같다. 흥동허스토리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순서였기 때문이다.

비인격적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기록관리는 비인격적 요소들(제도적인 장치들,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가 사람이라면 인격적 요소들이 아카이브 활동의 필수요소이다. 흥동허스토리는 다음의 요인들이 개입되고 작용된 것 같다.

첫째, 아카이브 활동가의 천진함이다. 천진함은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며 그 사람에게 배우는 태도이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보고를 받겠다는 태도를 버린다. 다 알고 있는 듯 우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 천진함은 인류학자에게 요구되는 참여관찰 기술에 속한다(윤택림 2013, 63-67). 아카이브 활동가는 이런 자질을 천부적으로 타고 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카이브 활동가는 그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귀 기울여 듣고는 허스토리에 맞는 질문을 던진다. 몇 년에 걸친 이런 반복된 과정은 유쾌한 정의를 세우는 시간이었다.

둘째, 참가자들 특유의 낙천성, 대화를 진정으로 즐기는 태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마을청중 코러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세트로 완비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다 있는 요소들인데, 아카이브에서 그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것들이다. 감옥의 독방에 갇힌 사람들은 나중에 이르면 쥐와 대화를 나눈다. 쥐도 인간에게 이야기 하게 하는 힘을 준다.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경청해준다는 느낌이 들면 심장이 뛰는 것이다. 이야기 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다. 몇 십 명의 마을청중들이 집단의 힘으로 코러스 효과를 내준다는 사실에서 이야기의 증폭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순간에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야기 생산은 정서를 증식하는 일이다. 흥동허스토리에서 이야기를 제

작하고 공유하고 체화하는 데에는 쾌락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타인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기쁨이 줄거리였다. 타인은 자기 삶의 방해물이기만 할 것인가. 아닐 것이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결국 어디에 가치를 두고 실천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흥동허스토는 공개적인 아카이브 활동이고, 공동체 작업이다. 이런 공동체 작업에서 아카이빙 해야 하는 것은 타인이 출처인 쾌락이다. 흥동허스토리는 시종일관 타인이 출처인 쾌락을 채종하고자 했다.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계속 농사지을 것인가. 무엇을 서로에게 줄 것인가. 쾌락이었다. 흥동허스토리는 쾌락을 마을공동체 감각으로 삼고자 하는 활동이다.

그녀들은 차별에서 평등으로 직진하지 않았다. 농사짓는 여자들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 여농은 토양농사를 먼저 짓기 시작했다. 채종만 하면 될 하나 대지에 심어서 잘 키우고 잘 먹고 사람들과 나누기도 해야지 하는 것이었다. 공동체 능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동체 능력은 타인이 출처인 것들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기쁨, 타인을 돌보고 그 타인은 또 타인인 나를 돌보는 공생적 돌봄의 윤리, 직접적 서비스(타인과의 육체적 만남과 교류를 위한 서비스)였다. 흥동허스토리는 차별이라는 부당한 운명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 맥락은 야밤에, 유쾌하게, 집단적으로 대항한다는 것이다. 정의는 부당한 운명에 대항하는 힘을 말한다. 그녀들은 ‘유쾌한 정의’를 아카이빙 하고 있었다.

비단 흥동허스토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아카이브이든, 아카이브 활동의 목적에 쾌락의 추구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것도 아카이브가 추구할 만한 가치이지 않을까. 인간에게는 개인적 자유(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각자가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하고, 관계지향적 자유(타인과 함께 가치 있는 것들을 행하거나 즐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문지영 2009, 56-59). 쾌락은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발간하던 기관지 ‘KARMA’는 매호마다 겉표지에 특이한 제목을 달았었다. 2015년 1월 1일자로 발행된 카르마의 제목은 ‘자유’였다. 아키비스트의 본능적 충동에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발간사에서는 까뮈의 문장을 인용하며 자유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것은 ‘자유란 조금 더 나아질 기회’라는 것이다. 어제의 아카이브보다 개선된 오늘의 아카이브이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 자유가 있다는 뜻을 것 같다. 이런 자유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자유와 연결된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정치공동체의 시민이 되는 것이었다. 자유로운 정치공동체는 자치가 진행되는 정치공동체이다(문지영 2009). 아카이브를 정치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록공동체라는 말은 자주 한다. 어떤 공동체인든, 기록관리 관행으로부터의 자치를 시도한다면(‘기록관리’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시도에서 자유의 냄새가 풍기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흥동허스토리를 다루면서 자치의 목록으로 직접적 서비스(육체적 만남과 교류라는 비폭력 직접행동), 돌봄의 윤리, 쾌락의 추구를 올려 보았다.

자유는 자유라고 말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자유를 자유라 말하지 않으면 자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시골마을의 아카이브에서부터 대도시의 대형 아카이브까지, 그 사람이 아카이브 활동가이든 기록연구사이든, 아키비스트이든 아카이브 이용사이든, 어떤 이름으로든 아카이브와 연결된 사람이라면, 기록관리 관행으로부터의 자치를 시도하면서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기를 희망해본다.

5. 맺음말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인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에 실린 작가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내가 살아 낸 세월은 물론 흔하디흔한

개인사에 속할 터이나 펼쳐 보면 무지막지하게 직조되어 들어온 시대의 씨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늬를 짤 수가 없었다. 그 부분은 개인사인 동시에 동시대를 산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의 잘사는 세상의 기초가 묻힌 부분이기도 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펼쳐 보인다.”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무늬를 짤 수 있었다면 박완서라는 작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서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 시대와 자신이 함께 교직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박완서는 몇 백 페이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였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우.’

홍동허스토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본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요〉는 마음을 여는 말이다. 또는 자신을 개방하고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세 음절에 실어 표명하는 말이지 않을까 한다. 그때의 얼굴 표정은 상기되고 기대에 차서 눈빛은 반짝인다. 상체는 앞으로 15도 정도 향하고 눈으로는 이야기 공간 전체를 시야에 담는다.

〈,〉는 잠시의 숨고르기이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도 나를 받아들여주세요 하는 제안이 이 쉼표의 행간에 들어 있다. 행간에는 무언가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속성이 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연결된다. 그 연결성에서 공감과지지, 연대감이 형성된다.

〈나는〉은 주체가 되어 말을 하는 것이다. 비록 세상의 힘에 좌지우지되어 우왕좌왕 살아왔어도 그것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로 말하겠다는 의지가 ‘나는’이라는 주어에 들어 있다. 자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했으며 어떤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의 행동이 전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행적에 대한 시비판단은 역사가들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일반화해서 말하지 않고 개별화해서 말하는 것이다. 각자의 방식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함이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각자

의 관점과 욕망으로 그것에 대해 말한다. 일반화해서 말할 경우에는 이런 고유성이 배제된다. 어떤 사람을 기록의 무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청해 듣는 것은,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하는 것이다.

〈살았어요〉는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인간은 어떤 사건을 자신의 몸으로 겪었으면서도 그 사건을 부정, 거부할 때가 있다. 또는 판단을 유보한 채 애매모호한 곳에 자신을 둔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때서야 비로소 삶을 긍정할 수 있다.

아카이브는 ‘과거를 보는 창’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야기는 투명한 창이기보다는 굴절이 많은 프리즘일 것 같다. 살면서 과거를 다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변형하며 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말해보자면, 어쩌면 변할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유일할 지도 모르겠다. 이야기의 역할은 그런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일 것 같다.

〈참고문헌〉

- 교육농연구소. 2019. 『교육농』, 서울: 교육공동체 벗.
- 김영신, 이경란. 2014. 『마을로 간 인문학』, 서울: 당대.
-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2013. 『지역과 학교』, 2013년 가을 통권 27호, 홍성: 마을공동체 문화연구소.
- 문지영. 2009. 『자유』, 서울: 책세상.
- 사이토 준이치 지음, 윤대석 외 옮김. 2009. 『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음.
- 송두범 외. 2017. 『우리는 왜 농촌 마을 흥동을 찾는가』, 홍성: 그물코.
- 오토 루트비히 지음, 이기숙 옮김. 2013. 『쓰기의 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윤택림. 2013. 『질적 연구 방법론』, 홍천: 아르케.
- 이경래. 2017. 동시대 ‘대항지역’의 기록화 -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3-77.

- 이병영. 2018.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 홍성: 그물코.
- 이승진. 2017. 『돌아보니 모두 은혜』(미발간물).
- 이영남. 2012.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찬갑. 2010. 『풀무학교를 열며』, 홍성: 그물코.
- 이현정. 2017. 공동체아카이빙 윤리의 모색, 한국기록학회 제117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 조민지. 2020. 디지털 기억 시대의 기록과 정보서비스,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0, 181-215.
- 조한혜정 외. 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충남발전연구원, 홍동마을 사람들. 2014. 『홍동마을 이야기』, 대구: 한티재
- 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7. 『그녀들의 홍동이야기 : 홍동허스토리(2016)』, 홍성: 홍성여성농업인센터.
- 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8. 『그녀들의 홍동이야기 : 홍동허스토리(2017-2018)』, 홍성: 홍성여성농업인센터.
- 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9. 『그녀들의 홍동이야기 : 홍동허스토리(2019)』, 홍성: 홍성여성농업인센터.
- 홍성씨앗도서관. 2019. 『우리 동네 씨앗 도서관』, 파주: 들녘.
- 홍순명. 2006. 『풀무학교 이야기』, 서울: 부키.